



김원섭, '이용규의 땅' 중견수 넘본다

4월의 부진 털고 맹활약... KIA 공·수의 핵으로

김주찬·신종길 복귀 앞두고 외야 경쟁 불붙어

살아난 김원섭이 외야 경쟁에 불을 붙인다. 시즌 초반 KIA의 외야는 치열한 생존 싸움이 벌어지는 정글이었다. 새 식구가 된 김주찬을 중심으로 이용규·나지완·김원섭·김상현·신종길의 주전경쟁이 뜨거웠다. 그러나 김주찬·신종길의 부상과 김상현의 트레이드 그리고 이용규의 계속된 부진으로 5월 KIA의 외야는 황무지가 됐다. 수비를 위해 이준호가 투입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군으로 내려갔고, 최훈라도 뚜렷한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외야의 위기에 김원섭이 조금씩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원섭은 시즌 초반 '선 수비 후 공격'을 위한 외야의 중심 카드였다. 이용규·김주찬과 함께 외야 선발로 투입됐지만 4월의 부진은 심각했다. 지난해 팀의 유일한 3할 타자였던 김원섭은 4월 한 달 35타수 5안타(타율 0.143)

를 기록하는데 머물렀다. 타격 침체에 마음이 급해지면서 선구안도 흔들렸다. 9차례 볼넷을 골라내는데 그쳤고 삼진은 12차례 당하며 무기력하게 돌아섰다. 타선의 부진으로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수비에서의 집중력도 떨어지는 등 김원섭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김주찬에 이어 신종길까지 부상으로 떠난 팀의 위기에서 김원섭이 외야 공·수의 중심으로 변신하고 있다. 지난 26일 NC전 연패 탈출에 김원섭의 활약이 있었다. 김주환의 역전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며 3-1의 리드를 잡은 4회, 2사 1·3루에서 2번 타자 역할을 맡았던 김원섭이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지난 23일 한화전 10-2 대승에도 김원섭이 공격의 시작점이었다. 5번 타자로 나선 김원섭은 1회 2사 2·3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기선 싸움을 주도했다. 김원섭은 "마음을 편히 먹기로 했다. 맞추는 데 주력하기 위해 방망이를 짧게 잡고 발을 덜 들고 있다. 또 그동안 급한 승부가 이뤄졌는데 공을 많이 보려고 한다"며 타석에서의 변화를 설명했다. 수비에서도 가장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원섭은 중견수 이용규가 어깨가 좋지 않아 지명타자로 나선 5경기에서 외야 중심에 서서 중견수 역할을 선보였다. LG와의 1점 차 승부가 벌어졌던 17일 잠실전에서도 멋진 수비로 승리를 지켰다. 김원섭은 3-2로 앞선 8회 1사에서 LG 4번 박용택의 안타성 타구를 쫓아 중견수 플라이로 둔갑시키는 호수비를 선보였다. 베테랑 이병규와 앞선 두 타석에서 연속해서 안타를 때렸던 정의운이 다음 타석에 대기하고 있었던 만큼 더욱 값진 호수비가 됐다. 김원섭은 "타구가 맞는 순간 미리 생각을 하고 공을 쫓는다.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하지 않고 자신있게 수비를 하려고 한다. 중견수로 뛰는 게 재미있었다. 중견수 시켜달라고 해야 할까 보다"며 웃었다. 실패보다는 성공을 생각하며 자신감을 회복한 김원섭이 KIA 외야에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打선빈 ... 投현종

◀ 김선빈
 타율 0.317
 안타·도루 1위

▶ 양현종
 다승(6승) 1위
 방어율·탈삼진·승률 선두

■ KIA 타이거즈 팀내 1위 (5월 27일 현재)

타자부문	투수부문
타율 김선빈 0.317(9위)	다승 양현종·소사 6승(공동 2위)
홈런 최희섭 8(4위)	방어율 양현종 1.79(2위)
타점 나지완 32(5위)	탈삼진 양현종 52개(5위)
득점 이용규 34(1위)	승률 양현종·소사 0.857(2위)
안타 김선빈 46(7위)	WHIP 양현종 1.17(7위)
출루율 나지완 0.431(5위)	이닝 소사 59.2(5위)
장타율 최희섭 0.535(3위)	세이브 앤서니 14개(2위)
도루 김선빈 16(2위)	홀드 유동훈·최향남 4개(공동 10위)
OPS 최희섭 0.962(2위)	* ()는 프로야구 전체순위

KIA 타이거즈 팀내 성적

KIA 타이거즈가 개막 후 43경기를 소화하면서 2013 시즌의 3분의 1지점을 넘었다. 화려한 4월과 침체의 5월을 보낸 KIA의 중간 성적은 투수 양현종, 타자 김선빈으로 얘기된다. 윤석민이 부상 여파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부활에 성공한 양현종이 팀 내 투수부문 1위 자리를 독점하며 에이스 칭호를 차지했다. 양현종은 6승을 거두며 소사와 함께 팀 다승 공동 1위(전체 2위)에 올랐다. 방어율(1.79), 탈삼진(52), 승률(0.857), WHIP(1.17·이닝당 출루 허용률) 1위에도 양현종이 랭크됐다. 지난 2년 8승을 거두는 데 그쳤던 양현종은 부상의 공포에서 벗어나 부활투를 선보이고 있다. 2013시즌 양현종은 '꾸준함'을 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록상으로도 가장 부진했던 경기는 6이닝 3실점을 기록한 15일 SK전. 지난 3일 넥센전에서는 팀 타선의 헛방망이질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8회를 1실점으로 막아냈다. 타선이 1점도 내지 못하면서 패전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양현종의 진가를 보여준 완벽피칭이었다. 소사는 팀의 '럭키 게이'로 등극했다. 지난



다승 1위 소사 수호신 앤서니
 타점왕 나지완 OPS 1위 최희섭

를 수집하면서 KIA의 새로운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다. 극과 극의 5월이 전개되면서 홀드 부문은 부상자로 자리를 비운 최향남(4개)이 여전히 유동훈과 함께 공동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타석에서는 '작은 거인' 김선빈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0.317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김선빈은 안타(46), 도루(16) 부문에서도 1위에 오르며 타격과 기동력의 중심이다. 타선의 침체 속에 KIA의 3할 타자는 김선빈과 나지완(0.315) 두 명밖에 없다. 팀의 4번 타자로 자리를 굳힌 나지완은 최희섭(31 타점)이 주축한 사이 가장 많은 주자(32)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타점왕이 됐다. '공을 부르는 몸'으로 9개의 사(死)구를 더해 출루율(0.431)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파워는 '빅초이' 최희섭의 몫이다. 5월 들어 2개의 홈런을 때리는데 그쳤지만 거침없던 4월을 바탕으로 홈런(8), 장타율(0.535) 부문과 장타율과 출루율을 합한 OPS(0.962)에서도 팀 1위를 지키고 있다. 타격 부진 속에서도 이용규(타율 0.244)의 '귀가 본능'은 살아있다. 이용규는 0.348의 출루율로 팀의 톱타자에 어울리지 않는 전체 36위에 머물고 있지만 34차례 홈을 밟으면서 9개 구단 전체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10호 홈런 '황' ... 친정팀 울렸다

클리블랜드 상대 멀티히트
 신시내티 4-2 승리 이끌어

최근 주춤했던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친정팀을 상대로 시즌 10호 홈런을 포함해 멀티히트를 터뜨리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인터리그에서 1회 선두타자 홈런을 치는 등 4타수 2안타 2득점 1타점의 활약을 펼쳤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안타의 부진을 씻어낸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90으로 끌어올렸다. 시즌 출루율도 0.442로 조금 올랐다. 신시내티는 추신수의 활약과 8회말 타진 조이 보토의 결승 투런 아치에 힘입어 클리블랜드를 4-2로 물리쳤다. 슬럼프 기미를 보이던 추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되살아난 경기였다. 지난겨울 이적 이후 처음 클리블랜드를 만난 추신수는 옛 동료들을 상대로 첫 타석부터 방망이가 달아올랐다. 0-0인 1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선발 우발도 히메네스를 상대로 2볼-1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147km짜리 포심패스트볼을 밀어쳐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아치를 그렸다. 3회에는 중견수 분공을 물러났고 5회에는 2루수 땅볼로 아웃됐다. 추신수의 진가가 다시 발휘된 것은 신시내티가 2-2 동점을 허용한 직후인 8회 말이었다. 다시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클리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가 28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인터리그에서 1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시즌 10호 홈런을 치고 있다. 지난 27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 때부터 추신수의 등장음악이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로 교체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블랜드 불펜투수 니 하가든과 8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좌전안타를 치고 나가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클리블랜드의 포수 카를로스 산타나의 패스트볼로 추신수가 2루에

해남출신 강경남 KPGA 2주 연속 우승 도전

내일 군산CC오픈 출전
 국내 투어 선수들 경쟁

한국 프로골프(KPGA) 투어 해피니스 광주오픈에서 19개월만에 투어 대회 정상에 오른 해남출신 강경남(30·사진·우리투자증권)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군산골프장(파72·7312야드)에서 열리는 군산CC 오픈에서 KPGA 투어 시드권자가 총출동해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KPGA가 투어 활성화



선수들은 다음주 다이아몬드컵 골프에 참가하느라 나오지 않아 군산 CC오픈은 순수 국내 투어 선수들의 독무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를 위해 올해 신설한 대회로 총상금 3억원이 걸려 있다. 김형성(33·현대하이스코), GS칼텍스 매경오픈 챔피언인 류현우(32) 등 일본 프로골프투어(JGTO)에서 뛰는 선수들은 다음주 다이아몬드컵 골프에 참가하느라 나오지 않아 군산 CC오픈은 순수 국내 투어 선수들의 독무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개인 통산 9승째를 올린 '승부사' 강경남은 삼간타 10승 달성을 목표로 이번 주에도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정교한 퍼트를 앞세워 침묵을 깨고 정상에 오른 그는 2007년 세운 개인 최다승(3승)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작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상을포인에서 1220점을 얻어 1위를 달리는 강경남은 이번 대회 우승상금 6000만원에 힘입어 이번 시즌 총상금 랭킹에서도 2위권으로 상승한다. 강경남은 1억5311만원을 벌어들여 이 부문 4위에 올라 있다. 1위는 2억1721만원을 가져간 류현우다. /연합뉴스